

상원사의 볼거리...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현재 전해지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약기를 연주하면서 천의를 흘날리며 날고있는 '주악비천상' 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안동에서 소백산 죽령고개를 넘어 올 때 종유를 하나 떼어 그곳에 묻어두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로 36개의 종유 가운데 하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문수보살에 의해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했다는데 의거하여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와 남편인 정현조 부부가 조성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문수동자상은 천진한 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복스러운 얼굴과 머리를 묶은 모습이 특징입니다.



국립공원 탐방서비스현장

저희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의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공원 관리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국립공원내 다양한 야생생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유구한 문화유적 등을 보전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유지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공원마다 특징있는 탐방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공원관리를 실제 경험하고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국민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공원 탐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풍부한 영상과 학습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탐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탐방서비스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공원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 | 3개년
KOREA NATIONAL PARK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6 ☎ Tel. 033) 332-6494
<http://odae.knps.or.kr/>

Nature, Our Future! 오대산국립공원
- 자연, 우리의 미래

천년역사의 자취를 찾아서

상원사 역사·문화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상원사라 불리게 된 이유



상원사 아래에는 과거 이곳에 거주하시던 큰스님들(한양, 탄허, 민회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있습니다. 이곳 부도터가 옛날에는 '진여원'이라는 절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여원이 사라진 후 진여원이 있던 자리 위쪽에 절을 세웠다가 상원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숲길 따라 피는 야생화

괘이는



나도바람꽃



물봉선



밭개덩굴



상원사를 오르는 길은 아릅드리 전나무와 활엽수로 이루어진 숲길입니다.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붙어자라는 연리목도 만날 수 있으며 봄부터 가을에는 수많은 야생화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동안 어느새 상원사에 다다르게 됩니다. 천년고찰의 신비를 웅장한 숲속의 녹음과 함께 느껴보세요.

상원사 이야기

최초에 진여원이라 불렀던 상원사는 월정사와 더불어 자장유사가 세운 절로 조선시대에 태조와 세조가 행행하여 여러 전설을 남긴 곳이며, 일제강점기의 대선사 방한암스님이 추석한 곳이기도 합니다. 월정사에서 주봉인 비로봉을 향해 약 10km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멸보궁을 참배하러가는 탐방객들의 경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상원사와 관련된 문화재로는 경내에 있는 상원사동종, 문수동자좌상 등 3점의 국보와 1점의 보물이 있으며, 이처럼 상원사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문수신앙의 중심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상원사 경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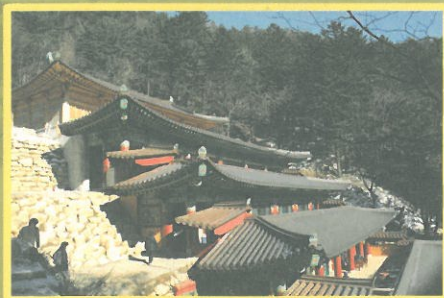


상원사에 얽힌 세조 임금 이야기



상원사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증대 사자암



상원사 뒷편에 자리한 증대는 비로봉을 오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에는 증대와 함께 동서남북대에 걸쳐 모두 5개의 암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오대산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적멸보궁과 사리탑비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경남 양산의 통도사, 강원 인제의 봉정암, 영월의 법흥사, 정선의 정암사, 오대산의 적멸보궁)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곳으로 부처의 정골사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다룬 능선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안온하면서도 표현하기 힘든 어떤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단풍을 피워주고 양위에 오른 세조는 육창이라는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헤매다 이곳 오대산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목욕을 하고 병을 치유했다고 전해지며, 이때 만났던 문수동자를 조각하여 만든 것이 지금의 상원사에 있는 문수동자상입니다. 또한 세조께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던 중 고양이와 도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자 이때 세조는 '묘전'이라 하여 이곳 일대의 땅을 고양이에게 하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밝혀주듯 문수전 입구에서 세월의 흔적을 담은 고양이 석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원사는 세조의 여러가지 연을 맺고 있는 절로써 오래된 역사만큼 재미있는 전설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